

## ‘라돈 사태’를 통해 보는

# 집단분쟁조정 제도

2018년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물질이다.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와서 내부 피폭을 일으키고, 비흡연자의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_정해운 팀장<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 소비자 6,000여명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라돈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폐암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고통을 호소하며 그 중 약 5,000명의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소비자 6,029명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

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집단조정사건이 접수되고 위원회는 5개월 간 6,000명이 넘는 소비자들과 연락하며 라돈 매트리스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를 하고, 라돈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질병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그리고 세 차례의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2018년 10월 29일 ‘대진침대는 소비자

4,665명에게 매트리스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이유에서 현재 단계에서 신청인들에게 발생한 질병이 라돈으로 인한 질병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느끼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 조정결정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소비자들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대진침대는 이미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르기 어렵다고 조정을 거부했고, 결국 집단분쟁조정은 실패로 끝났다.

### 집단분쟁조정의 제도적 한계

이번 대진침대 사건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집단분쟁 조정은 태생적으로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해야 구속력이 발생한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이미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사업자가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사업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은 대진침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사실 소송의 경우도 대진침대의 재산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력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라고 생각된다.



###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위한 방안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 번째는 중재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다. 중재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

중재 합의는 분쟁 중에도 할 수 있고,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할 수도 있다. 중재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먼저 중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분쟁 발생 시 중재기관의 중재를 수용한다고 동의한다면 향후 실제 소비자분쟁 발생 시 소비자의 동의하에 중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대불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 되었음에도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면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서도 먼저 기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은 끝이 났지만 라돈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소송 이외의 절차에서 용이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